

느낌 (Feel)이 있는 관광



43 Autumn 2018 tourandong.com 안동 유일의 관광잡지



VOL.
43

2018. Autumn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P.04-09

걷기 좋은 안동여행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8



P.10-13

찾기 좋은 안동여행
안동, 가을 국화향을 머금다



P.14-21

의미 있는 안동여행
안동관광지를 돌며
스там프를 찍고 상품 받자



P.22-25

향기로운 안동여행
낙강물길공원, 봉정사,
옥정동 카페 오감, 미술관커피



P.26-29

색다른 안동여행
안동서부시장 청춘야시장!



P.30-31

안동 살펴보기
안동관광블로그 - 만휴경



P.32-35

안동의 문화행사
가을 여행 소식

발행인 권영세 발행처 안동축제관광재단
편집책임 김은정 편집위원 박원호 권재환 이성학 김주호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옥사로 239
대표전화 054-856-3013 팩스 054-852-9230 이메일 vkehdi@hanmail.net
홈페이지 www.tourandong.com www.maskdance.com
발행일 2018년 9월(통권 제43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 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 장종규

©안동필 / 본지에 실린 어떤 내용도 안동축제관광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썩! 탈을 쓰고 춤을 추면 넘쳐나는 신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

세계보편문화 탈과 탈춤, 세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의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은 올해 2018년 9월 28일(금)부터 10월 7일(일)
까지
탈춤공원과 안동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이스라엘,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야쿠티아 등 13개국
14개 탈춤을 비롯한 국내 탈춤, 태국의 날,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및 다양한 축
제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하고 있다.

‘가면’은 세계 보편적 문화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탈을 쓰고 흥청망청 축제
를 즐기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탈을 통해 자신의 희
노애락을 표현한다. 가슴 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자신만의 세계를 폭발하듯
풀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 바로 탈춤
이다.

안동에는 이러한 탈춤을 테마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있다. 10일 동
안 100만명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
티벌의 바탕은 안동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안동문화는 시대적, 지리적 영
향으로 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문화들이
온전히 전승되어 온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며, 동시에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800년의 역사를 가진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그 재미와 의미가 남다르다. 유명한 반촌(班村)인 하회마을에서 전승되는 서민들의 놀이인 하회별신굿탈놀이에는 이 마을 서민들의 삶살이가 그대로 녹아 있고 그 탈놀이를 통해 우리는 웃고 울며 그들의 삶을 엿본다. 뿐만 아니라 하회탈의 조형성은 각 인물의 삶과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의 탈로 대표된다.



야누스를 통해 만나는 일상 속 나와 축제장 속 나의 특별한 만남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야누스’라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주제를 통해 일상 속 나와 축제장 속의 나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서 문을 수호하는 신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다. 1월을 영어로 January라고 하는데 지나간 해와 새해의 두 해를 가리킨다는 의미의 야누스(Janus)에서 전래하였다. 라틴어로는 문을 ‘야누아(Janua)’라고 하는데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하여 야누스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지칭하였다.

축제 속에서 만나는 야누스의 얼굴은 과거와 미래, 일상과 비일상, 평범과 일탈을 의미한다. 이로써 문은 경계이자 축제로 들어오는 통로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두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를 통해 ‘일상 속의 나’와 축제의 마당에서 ‘신명에 빠진 나’를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가진 열정을 분출하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탈춤의 등장인물들도 탈을 쓰는 행위를 통해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양반탈을 쓰면 양반이 되고 각시탈을 쓰면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인간의 유희적 본능을 표현하고 이성과 욕망이 만나 폭발적 경험을 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축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누스와 세계 각국의 탈들을 통해 인간의 억눌렸던 감정과 유희적 본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탈, 그 매력적인 문화 속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800년 전통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전통탈춤 20개 단체와 창작탈춤, 세계 각국의 탈춤 등 국내외 탈춤 40여 단체가 공연하고, 시민과 일반인들도 탈을 쓰고 춤과, 놀이,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이 펼쳐지는 행사이다.

탈춤축제와 함께 한국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의 장도 펼쳐진다. 남성들의 힘을 느껴지는 '안동차전놀이', 여성들만의 민속놀이인 '늦다리밟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유교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향음주례, 유교경전암송, 여성문학인 내방가사, 삶과 죽음의 의례 '한두실 행상소리', 일과 노래를 함께한 '저전 논매기 소리' 등 한국 전통민속 30여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8년에는 13개국 14개의 해외 공연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신비로운 가면 속에 감추어진 문화를 탈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전국 춤꾼들의 향연이 될 총 상금 7,000만 원이 걸려있는 '세계탈놀이경연대회'는 탈을 착용한 댄스 경연대회로 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의 장이 열려 있다. 이러한 '세계탈놀이경연대회', '탈놀이대동난장' 등을 통해 문화권과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탈을 착용함으로써 다양한 재미와 축제적 열정을 만끽할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 탈춤의 정수를 보고, 또한 탈만 쓰면 인류는 모두가 하나라는 축제적 재미를 즐기게 해 준다. 또한 한국 속의 한국, 안동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회마을에서 펼쳐지는 전통불꽃놀이 선유(船遊)줄불놀이

탈춤축제장과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회마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하회마을은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모태(母胎)가 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고장이자 안동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지이다. 축제의 신명을 마음껏 느낀 후 전통마을의 풍류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연은 선유줄불놀이이다. 하회마을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은은한 전통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는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펼쳐지는 민중들의 놀이라면 양반들의 놀이는 강과 시(詩),

풍류를 결합한 바로 이 선유줄불놀이이다. 배를 타고 시를 읊으며 줄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감상했던 이 선유줄불놀이는 탈춤축제 기간인 9월 29일과 10월 6일 저녁 7시 일년에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다. 8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하회마을, 서정적 낙동강, 마을의 정원 부용대, 만송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하여 은근하고 오랜 전통적 불꽃놀이의 진수를 보여준다.

2018년 탈춤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축제의 일탈을 경험할 수 있는 탈놀이 대동난장을 강화하여 자신만의 야누스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며, 세계 보편문화인 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 가을, 야누스와 함께 일상을 벗어난 유쾌한 일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ㄸ



안동, 가을 국화향을 머금다

글 박선미 | 물질문화연구회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문턱까지 마중을 나왔다. 가을은 봄과 여름을 지난 여러 식물이 낙엽으로 물드는 계절이지만, 반대로 만개하는 식물도 있다. 가을에 활짝 피는 꽃으로는 '국화(菊花)'가 대표적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화는 고결, 청순, 정조, 평화 등을 의미한다. 국화는 '매난국죽(梅蘭菊竹)'이라고 해서 군자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시(詩), 그림 등에 많이 활용되는 소재였다.





전통적으로 국화는 뿌리부터 꽃잎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국화는 가을철에 빗는 술에 넣어 ‘국화주(菊花酒)’를 담그기도 했다. ‘국화수(菊花水)’는 국화 밑에서 나는 물로, 따뜻하고 단맛이 나며 독이 없어 풍비(風痺)와 어지럼증에 좋다고 알려졌다. 깊은 상처가 있는 부스럼에는 국화잎으로 즙을 내어 마시고 건더기를 상처 부위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고 했고, 겨울철에는 국화뿌리와 줄기를 찢어 붙여도 좋았다. 구한말 이후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식 장례풍습에 따라 장례식장에 흰 국화를 쓰기도 했다. 흰 국화는 성실, 진실, 감사의 뜻이 있다.

이처럼 국화의 쓰임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국화를 ‘차[茶]’로 마셔온 전통이 오래되었다. 1700년대 홍만선(洪萬選)이 엮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감국화가 절반쯤 피었을 때 따서 꼭지의 푸른 껍질을 제거하고 감천수로 끓여 꿀을 타서 마신다. 이미 꽃이 핀 좋은 국화는 꼭지의 껍질을 제거하고 꿀에 재워 보관한다. 이후 꺼내서 녹말가루에 굴려 끓는 물에 잠깐 데쳐 꿀물에 넣고 잣을 띄워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박해통고(博海通攷)』, 『부인필지(婦人必知)』,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등에서도 국화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에 대해 쓰여 있다.

안동에서는 국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2008년부터 매년 안동 서후면 봉정사 주변에서 국화축제인 ‘안동 서후봉정사 국화대향연’을 개최하고 있다. 봉정사는 현전하는 최고의 목조건축물인 극락전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올해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가운데 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봉정사권역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봉정사국화마을권역위원회가 주관하는 봉정사 국화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다. 매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축제에는 약 50개의 부스에서 국화차와 음식을 시연하고 판매하며, 국화꽃 따기 체험장 뿐만 아니라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안동에서는 국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는데 안동국화가 전국에서 최초로 국화차로 개발되어 청와대와 남북정상회담 선물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우수성과 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 안동에는 국화를 재배해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대표적으로 보화다원(황국), 남탐산방(금국국화차), 가을신선 등이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에 대규모로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구전에 의하면 봉정사의 스님들이 국화차를 만들어 오다가 신도들에게 전수해주면서 국화 재배하는 것이 알려졌다고 한다. 여하튼 안동사람들의 국화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가을에 안동을 방문하면 국화축제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정사 인근의 여러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봉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의성김씨 학봉종택'(경상북도 시도기념물 제112호)이 있고, 여기에서 고택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동이천동석불상'(보물 제115호)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엔 국화향 가득 머금은 안동 방문을 추천해 보고 싶다. ㅍ

※ 참고 문헌과 자료

- 『단방비요경험신편(單方祕要經驗新編)』
- 『단곡경험방(丹谷經驗方)』
- 『박해통고(博海通攷)』
- 『부인필지(婦人必知)』
-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뉴스1> 2015년 10월 28일 기사
 보화다원(항국) 홈페이지(<http://bohwa.kr>)
 남탐산방(금국국화차) 홈페이지(<http://www.gughwa.com>)
 가을신선 홈페이지(<http://gaulsinsun.com>)





정릉리월영교, 월영교, 대사포, 월영교, 안동민속박물관, 유곡랜드, 제비원(언미사),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안동 스탬프 투어

안동관광지를 돌며 스탬프를 찍고 상품 받자

글 김희열(안동시 SNS기자단)

안동으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을 위해 유명 관광지를 둘러 보실 때 참고할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스탬프 투어인데요. 다들 스마트폰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동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스탬프의 개수에 따라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이루어지는 스탬프 투어는 두 가지 종류로 장거리 코스와 단거리 코스가 있는데, 단거리 코스는 시내와 안동댐 근처라 쉽게 다닐 수 있고, 스탬프를 도장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두 장소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다 도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단거리 스탬프 투어에 관한 정보는 이곳 안동시청 블로그 마카다 안동에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장거리 코스로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안동스탬프투어 어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스탬프는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GPS를 통해 장소에 도착하면 도장받기를 눌러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각 장소에 대한 정보와 현재 위치에서 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탬프 받는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는 편하신 곳부터 이동하시면 되시고 경품 증정장소인 월영교,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를 맨 마지막 스탬프 투어 장소로 잡으시면 경품 수령에 도움이 되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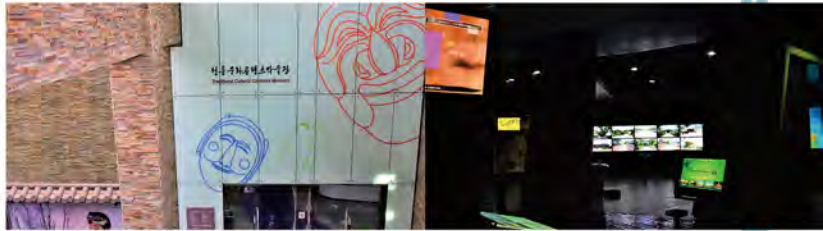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우선 시내와 가까운 장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안동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유물이 전시된 곳이 아니라 20여 개의 콘텐츠가 탑재된 미디어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물이 아닌 콘텐츠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 ❁ 주소 : 안동시 서동문로 203
- ❁ 전화 : 054-840-6511
- ❁ 운영시간 : 09:00~ 18:00
- ❁ 요금 : 어른(3,000원), 청소년(2,000원), 어린이(1,000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내부 사진입니다.



태사묘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태사묘인데요. 고려 건국 공을 세운 삼태사 김성평, 권행, 장정필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삼태사는 태조를 도와 견훤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태사묘에는 3공신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보물각, 송보당, 동서재, 경모루, 안묘, 차전각 등이 있습니다.

- ❁ 주소 : 안동시 태사길 13
- ❁ 문의 : 054-852-1969
- ❁ 운영시간 : ~17:00시까지



태사묘로 들어가는 경모루입니다.



태사묘의 보물각입니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고려시대의 유물이 전시된 점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개방을 하지 않아서 관광 해설사 분의 도움을 받아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월영교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월영교인데요. 월영교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규모가 큰 목책 인도교입니다(길이 387m, 폭 3.6m). 원이 엄마와 이응태 부부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다리는, 매주 토, 일 3회(12:30, 18:30, 20:30) 분수가 운영되기도 한답니다. 특히 야간의 야경과 분수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분수가 나오는 월영교의 모습



월영교로 들어가기 전 주차장 관광안내도 옆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스탬프 선물을 주는 월영교 안내소**입니다. 이곳은 따로 전화가 없고 오후 5시 이전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곳 주변에서 월영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민속박물관

월영교 다리를 건너서 왼쪽 편으로 이동하면 다음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안동민속박물관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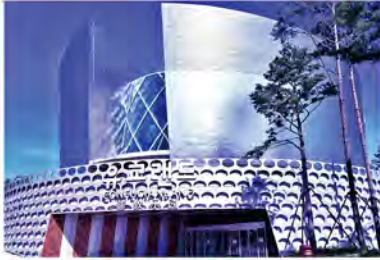
민속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내에 안동관광스탬프 투어 안내 글이 보인답니다. 이곳에서 스탬프를 찍으시면 되고, 저기 분홍색 통은 단기코스를 선택하신 분들이 종이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안동의 유교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공간으로, 평생의례를 볼 수 있는 민속박물관입니다. 지금은 국보하회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하회탈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 ❁ 주소 : 안동시 민속촌길 13
- ❁ 전화 : 054-821-0649
- ❁ 운영시간 : 09:00~18:00
- ❁ 요금 : 어른(1,000), 청소년·군인(300원)



유교랜드



유교랜드의 전경모습입니다.

- ❖ 주소 :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30
- ❖ 전화 : 054-820-8800
- ❖ 운영 시간 : 10:00~18:00(평일)10:00~19:00(주말, 토, 일), 국공휴일, 매주 월요일 휴관
- ❖ 요금 : 일반(9000원), 청소년(8,000원), 어린이(7,000)

민속박물관에서 스탬프를 찍으셨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 텐데요. 다음 장소는 유교랜드입니다. 안동하면 유교문화를 빠트릴 수 없겠죠. 유교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형 공간으로, 대동마을, 소년선비촌, 청년선비촌, 중년선비촌, 노년선비촌, 참선비촌 총 6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에 하이마스크라는 재밌는 공연도 이곳에서 펼쳐진답니다.



유교랜드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안동댐 근처의 스탬프 투어의 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 외에도 해상촬영지, 물문화관, 구름에 리조트도 있고, 카누와 보트도 탈 수 있으며, 개목나루에서 타는 나룻배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실 곳은 사찰문화를 볼 수 있는 제비원(연미사)와 봉정사입니다.

제비원(연미사)

제비원(연미사) 미륵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미소가 온화하고 아름답습니다.

우선 제비원(연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라 634년 명덕이 창건한 사찰로, 연이처녀의 이야기와, 이여송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제비원 미륵 앞을 지나는데 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여송 장군이 미륵 불의 목을 쳤는데 붉은 피가 흘러 그 핏자국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제비원에는 미륵부처님과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 있는데요. 대웅전 위에는 소원을 담은 아름다운 연등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마음속의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에는 솔씨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전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넓습니다.

- ❖ 주소 : 안동시 제비원로 672
- ❖ 문의 : 054-841-4413
- ❖ 입장료 없음, 연중무휴, 주차 가능



봉정사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등산에 위치한 봉정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전통 산사 7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곳 중 한 곳이 봉정사입니다. 봉정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기도 하셨는데요. 오랜 세월만큼이나 아름다운 산사입니다. 봉정사는 국보 제15호 극락전과 국보 제311호 대웅전, 보물 제448호 화엄강당, 보물 449호 고금당 등이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과 문재인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봉정사로 향하는 만세루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글이 있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극락전입니다.

- ❁ 주소 :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 ❁ 요금 : 성인(2,000원), 청소년·군인(1,300원), 어린이(600원)
- ❁ 전화 : 종무소(054-853-4181)
- ❁ 홈페이지: <http://www.bongjeongsa.org>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는 규모면에서 많이 크지는 않지만 역사성을 지닌 건물이 있다는 점만으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힐링하며 스탬프를 받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회마을



하회마을 입구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라는 글이 보이네요.

다음으로 봉정사를 나와 풍산으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에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하회마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매표를 하고, GPS신호를 잡아서 스탬프를 이곳 매표소에서 찍은 후에, 버스를 타고 하회마을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교환은 하회마을 입구 안내소에서 가능하답니다.

하회마을은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풍산 류씨가 살고 있으며, 낙동강물이 이 마을을 감싸 돌면서 흐른다고 하여 하회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회마을의 부용대와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2차례 펼쳐지는 선유줄불놀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하회별신굿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은 하회마을을 방문하셨다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회마을 상설공연장에서 1월~2월 : 매주 토·일요일 14:00~15:00(1시간), 3월~12월 :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14:00~15:00(1시간) 공연을 한답니다.



하회마을에서 볼 수 있는 멋진 부용대입니다. 부용대에서 조금만 가면 소나무 길도 나옵니다.



보물 제306호인 충효당입니다.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종택입니다.



보물 제306호인 양진당의 사랑채 모습입니다.

풍산 류씨의 대종택으로 '충효당' 편액인 이 글씨는 류의하가 사랑채를 중수할 때 명필가 허목 선생이 전서로 쓴 글이라고 합니다.

- ❖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2-1
- ❖ 운영시간 : 하절기(09:00~18:00), 10월~3월 동절기(09:00~17:00)
- ❖ 요금 : 어른(5,000원), 청소년·군인(2,500원), 어린이(1,500원)
- ❖ 홈페이지 : <http://www.hahoe.or.kr>
- ❖ 전화 : 054-853-0109

병산서원



하회마을 근처에 병산서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본래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으로 고려 때부터 사림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572년(선조5)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이 지금의 병산으로 옮겼고,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존덕사에는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병산서원의 입구인 복례문입니다. 보통 서원의 정문은 삼문이 일반적인데 병산서원의 솜을 삼문은 가운데 칸만 판문(板門)이고, 좌우로는 담장과 구분되는 벽채를 한 칸씩 두고 있다고 합니다.

병산서원의 핵심 건물인 강당인 입교당입니다.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기와집입니다.



도산서원

10곳 중 9곳을 둘러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산서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산서원은 옛날 천원권 지폐에 등장하기도 하였는데요, 안동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도산서당이 있으며, 퇴계 선생님 사후 제자들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서원을 출입하는 정문인 진도문의 로 강당인 전교당이 보입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현판 글씨가 보이는 전교당입니다.



- ❖ 주소 :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 운영시간 : 하절기(09:00~18:00), 동절기(09:00~17:00)
- ❖ 요금정보 : 성인(1,500), 청소년·군인(700), 어린이(600)
- ❖ 안내소 : 054-840-6576

매주 토, 일에는 30분 단위로 도산서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설명을 들으며 도산서원을 둘러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10곳의 스탬프투어 장소를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 하루만에도 둘러볼 수 있지만, 천천히 둘러보면서 해설사분의 설명도 듣고 버스로 이동한다면, 같은 방향의 관광지 계획을 짜서 1박2일 혹은 2박3일로 넉넉히 구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경품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 관광명소 방문 안내에 나와 있는 10곳 관광지 중 편한 곳부터 선택 방문합니다.
- 스탬프 찍기 : 관광지와 50m 내로 가까워지면 설치된 앱에 스탬프 찍기가 나오고 누르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경품받기 : 7개 이상의 스탬프를 모았으면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월영교 안내소 중 1곳에서 경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품 수령 방법

- 스탬프를 찍은 후 경품 수령을 누른 후 경품 수령 장소에서 안내원에게 경품 수령 코드를 보여주면 경품을 준답니다.
- 경품 수령 시간 : 10:00~17:00
(관광안내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경품은 1회만 수령가능
- 경품 안내
7~9개 스탬프 획득 - 텀블러
10개 획득 - 하회탈이 각인된 가죽 필통
- 경품은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답니다.
- 문의
안동축제관광재단 ☎ (054) 856-3013
안동시청 관광진흥과 ☎ (054) 840-6392

스탬프 투어 장소 안내

도산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이천동 석불상(연미사), 태사묘, 안동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월영교, 안동민속박물관, 유교랜드 10 곳입니다.

지정된 관광지에 도착하시면 '눌러서 스탬프를 받으세요. 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이곳을 누르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장소의 왼쪽편의 안동시 마크가 회색에서 색있는 것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10개를 모두 채우면 저 지도의 색도 다 채워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스탬프를 획득 후 그 장소의 스탬프가 찍혔는지 확인을 하시고 개수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7~10곳의 안동의 관광지를 돌아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짹. 이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선물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은 7~9개 선물인 텀블러 오른쪽은 스탬프 10개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하회탈이 각인된 가죽지갑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지, 어떤 코스로 이동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서 안동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ㄸ

향기로운 안동여행

낙강물길공원 (안동댐폭포공원)

추천 시기(단풍) : 10월 중~하순

가는 법 : (주소 없음) 안동댐 방면 영락교 앞 상
아교차로에서 직진하여 동악골 갈림길에서 우
측 도로로 이정표를 확인한 후 진입



검색창에 안동댐폭포공원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안동 비밀의 숲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동 비밀의 숲은 낙강물길공원 또는 안동댐폭포공원에 아주 잘 어울리는 별칭입니다. SNS에서는 정식 명칭보다는 비밀의 숲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은 예전에는 안동댐쉼터였다가 안동댐폭포공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낙강물길공원으로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비밀의 숲이라는 별칭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안동의 명소 중의 명소로 언급되면서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낙강물길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가을이라는 사실! 단풍이 한창일 때 방문하면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하염없이 펼쳐집니다. 안동 가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안동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가을에 방문하면 비밀의 숲과 단풍의 숲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봉정사

추천 시기(단풍) : 10월 말~11월 초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19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된 봉정사는 언제나 고즈넉한 곳이지만, 단풍이 드는 가을에 방문하면 무척 아름다운 모습을 두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록달록한 봉정사의 가을은 누군가 물감으로 칠한 듯 치명적인 풍경을 뽐냅니다. 가을 봉정사의 영산암 앞 계단은 그야말로 그림같습니다. 400년 넘은 노거수와 은행나무들, 봉정사 건물의 정취가 어우러져 가을 단풍의 진수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봉정사는 고요하지만 나무들은 한껏 자신들의 색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봉정사의 아름다운 단풍은 오래도록 볼 수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딱 추워질 때 절정을 이루는 까닭에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행한 나무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봉정사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온통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봉정사의 아름다운 단풍을 느릿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옥정동 카페 오감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53-16
영업시간 : 12:00~21:00
휴무일 : 매주 화요일
전화번호 : 054-841-5316

안동 원도심 옥정동에 자리잡은 한옥카페 오감은 카페 이름처럼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공간입니다. 주택들이 몰려있는 옥정동 골목 한켠에 정겨운 모습으로 자리잡은 카페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요즘 안동의 핫플레이스라서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데도 커피류보다 마카롱이 맛있는 곳으로 더 알려질만큼 마카롱이 아주 맛있는 게 특징! 늦게 가면 마카롱이 매진되어 구매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마카롱이 목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도 아늑함을 유지하면서 취향을 저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한옥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주문 공간과 커피숍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일행들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답소를 나누기에 좋습니다. 오감밀크티도 마카롱과 함께 인기메뉴이며 전통색채화 및 민화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미술관커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7
영업시간 : 10:00~22:00
전화번호 : 054-821-2089

안동역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은 미술관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커피업계에서 유명한 박이추 커피 공장에서 원두를 가지고와 커피를 만듭니다. 예약석과 프라이빗한 테이블이 별도로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입소문을 타고 안동 시내권에서 인기를 얻은 커피숍입니다. 포토존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는 화장실 입구 쪽 공간에서는 인증샷을 남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카페 곳곳에 미술 작품들과 도자기 등 예술작품들이 전시돼 있어서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눈이 즐겁습니다. 혈관튼튼 쥬스, 당근케이크, 마카롱, 각종 커피류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준비돼 있는 카페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핸드드립 커피로 커피와 물을 섞어 층을 만들어 둔 독특한 커피예요. 마실수록 맛이 진해져서 재미와 함께 특유의 향과 맛으로 눈코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메뉴입니다. **ㄸ**



야경이 아름다운 안동! 밤이 즐거운 시장!

청년들과 상인들의 화합으로 살아나는 상권!

안동의 대표 시장인 구시장(짚닭골목)의 글로벌명품 시장 사업과 중앙신시장의 청년몰 조성사업에 이어 서부시장에 청춘야시장이 만들어졌다.

매주 금, 토 18:30분 ~ 22:30분 까지(계절에 따라 유동적) 해질 무렵이 되면 불이 꺼진 서부시장의 골목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들끓게 하기 위해 청년들과 시장 상인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야시장 매대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청춘야시장은 민선 6기 안동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장 기능이 상실된 서부시장에 새로운 문화코드인 야시장을 조성, 시민 및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여 서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월 16일 처음 야시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장 상인회와 주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는 경주 중앙시장 야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답사를 진행하고, 연이은 회의를 통해 매대 디자인과 메뉴 심사, 대상지 선정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적잖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로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야간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서부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념으로 준비되었다.

방의 외곽에!
청춘야 즐기러 가요~

안동서부시장 청춘야시장

* 매주 금, 토 18:00~22:00
서부시장 내 (서부건강원~신원사당)
금요일마다 인기 가수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요 메뉴 쪄우~욱~!!! 점심영업 !!
서부야시장 인기 메뉴를 청춘야시장에서

햄스테이크, 칠리버터갈릭쉬림프, 구워먹는 아이스크림
왕남약장, 튀김바삭이, 아재홍콩삼겹살이, 닭꼬치, 바베큐림
가오리무침, 각종 튀김, 음료(커피, 슬러시) 등

※ 음식이외, 태닝대용, 헤어스프레이, 후회의 오력(두드림기 등) 무료체험 가능



청춘야시장의 시작은 세 차례의 상인 모집과 두 달간의 매대 제작기간을 거쳐 유난히도 추웠던 2017년 12월 8일에 여섯 개의 매대를 배치하여 시범개장 운영하였다.

6회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인 빈약한 메뉴와 매대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2018년 4월 20일 14명의 열정 있는 상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메뉴로 새롭게 단장·오픈하였고 현재 총 17개의 매대가 청춘야시장의 밤을 밝혀주고 있다.

새로이 탈바꿈하며 타지의 청년들이 유입되었고, 상인들의 참여 또한 늘어났다. 안동시와 지역의 공연예술인들도 청춘야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금요일, 다양한 이벤트와 버스킹공연 등으로 협력하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여름, 야외에 조성되는 야시장인 만큼 무더위를 피해 7월 27일 ~ 8월 25일 까지 혹서기 휴장으로 다시 심기일전하여 2018년 8월 31일에 재개장에 들어갔다.





야간에 불을 밝히며 골목을 늘어선 매대들에서 판매되는 찹스테이크, 칠리버터갈릭새우, 불막창, 우유튀김, 풍집튀김, 옛날햄버거, 과일에이드, 닭발볶음, 목살스테이크, 가오리무침, 떡도그, 튀긴빠삭이, 오꼬노미야끼, 구워먹는 아이스크림, 닭스테이크, 닭꼬치, 타우 등 타 지역의 유명 야시장에 뒤쳐지지 않는 메뉴들과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버스킹, 문화공연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다양한 메뉴들 중 술안주로도 적절한 메뉴들은 구입하여 인근 상가에서 술과 함께 즐길 수도 있다. 또, 지방에서 접하기 힘든 SNS에서 유명세를 떨친 메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데이트를 즐기는 재미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올 해 하반기에는 안동시에서 제1회 청춘야시장 먹거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부시장과 안동의 야간문화를 새로이 여는 축제가 될 것이다.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많은 발길이 닿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춘야시장과 축제, 상인들과 청년들의 상생과 화합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본다. **ㄸ**

안동 관광지 · 축제 · 맛집 · 카페 · 숙박 · 원목스테이 · 체험 정보가 가득가득

안동 관광



안동 만휴정 원림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金係行)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로 폭포, 계류,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이다.

- 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173호 지정
- 2011년 8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82호로 지정



-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이 만년을 보내기 위하여 건립
- 정면은 누마루 형식으로 개방하여 자연경관을 감상
-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학문 공간으로 활용



출처 : 경북나드리

김계행(金係行)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정자로, 김계행은 조선 전기의 청렴결백한 관리로 뽑혔던 분으로,

보백당만휴정천석 寶白堂晩休亭泉石

'내 집에 보물이 있다면 오직 맑고 깨끗함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만들 축제행사



만들 만보기



만들의 고목



만들 볼거리



만들 낚시기



송암폭포와 그 위의 그림같은 만휴정

만휴정의 포인트는 만휴정 입구에 있는 송암 폭포와 그 주변 풍경이다. 만휴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딱 한 명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가히 선경이라 할 만하다. 명승 제 82호의 위엄이다.

만휴정은 인공적인 원림요소가 극히 절제된 구성을 지니고 있는 원림으로 사색에 잠기는 한적함을 느끼길 바란다.

촬영지



'미스터 션샤인'

2018.7.7부터 방영중인 tvN 드라마 여러 장면에서 만휴정을 찾을 수 있는데 영상미와 함께 아름다운 만휴정이 돋보이는 장면이 속속 등장한다.



'공주의 남자'

2011.7.20~10.6 KBS2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포스터 촬영지이기도 하다. 한적한 만휴정의 다리와 그림같은 송암 폭포에서의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을여행 주간 - 할인혜택(2018년 10월 20일 ~ 11월 4일)



● 유교랜드
(관광단지로 346-30)
입장권 2,000원 할인



● 이육사문학관
(도산면 백운로 525)
입장권 20% 할인



● 하회마을
(풍천면 전서로 186-8)
입장권 20% 할인



● 도산서원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입장권 20% 할인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서동문로 203(동부동))
입장권 20% 할인
※ 쿠폰 필요



● 안동시투어 동이사람들
(경동로 130)
3,000원 상당 기념품 제공
※ 쿠폰 필요



● 안동리철포텔
주중 30%, 주말 공휴일 20%
할인(식사 미포함)
※ 쿠폰 필요



● 안동그랜드호텔
주중 30%,
주말 공휴일 20% 할인
※ 쿠폰 필요



● 고타야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쿠폰은 여행주간 홈페이지(<https://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풍경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하루더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링커파티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유귀농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피터팬게스트하우스
숙박료 10% 할인
※ 쿠폰 필요



● 고택협동조합 서로가
(수애당, 수졸당, 정재종택,
치암고택, 칠계재)
숙박료 주중 10% 할인



● 안동찜닭골목
(서부동 1852)
2,000원 상당 서비스
(공기밥, 음료수 등)



● 안동식선
(민속촌길 190)
구름에 북카페 및 와인바
10% 할인



● 안동반가
(민속촌길 190)
한복체험 10% 할인

내 마음을 전해주는 향기

- 일시 : 10월 21일(일), 10월 28일(일), 11월 4일(일)
- 장소 : 안동민속촌 일원
- 문의 : 안동관광두레협의회 010-5301-0225
- 내용 : 향기를 담은 엽서 만들기



안동을 가져라

- 일시 : 10월 20일 ~ 11월 4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 장소 : 안동민속촌 일원
- 문의 : 안동관광두레협의회 010-5301-0225
- 내용 : 안동관광지도를 활용한 게임



고택음악회 '할로윈 좀비'

- 일시 : 10월 27일(토) 저녁 7시
- 장소 : 안동민속촌 내 이원모와가
- 문의 : 안동관광두레협의회 010-5301-0225
- 내용 : 할로윈 좀비와 함께 즐기는 고택음악회



안동관광홈페이지 SNS이벤트

- **참여기간** : 2018년 9월 10일 ~ 10월 30일
- **참여방법** : 만휴정에서 예쁜 사진 촬영 후 해시태그(#만휴정 #안동사랑 #안동여행)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응모 완료
- **결과발표** : 안동시청 홈페이지(11월 중) 및 개인 연락
- **이벤트상품** : 안동맘모스제과 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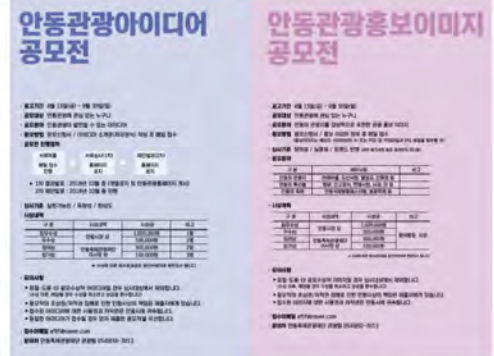
안동관광아이디어공모전

- **기간** : 2018년 4월 13일 ~ 9월 30일
- **공모대상** : 안동 관광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안동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응모방법** : 응모신청서 / 아이디어 소개문(자유양식) 작성 후 메일 접수
- **문의** : 안동축제관광재단 054-856-3013



안동관광이미지공모전

- **기간** : 2018년 4월 13일 ~ 9월 30일
- **공모대상** : 안동 관광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안동의 관광지를 감성적으로 표현한 관광 홍보 이미지
- **응모분야** : 안동의 관광지, 안동의 특산물, 안동의 축제
- **응모방법** : 응모신청서 / 홍보이미지 첨부 후 메일 접수
- **문의** : 안동축제관광재단 054-856-301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Korea's Spiritual Culture, Fell of the glorious doctrines of Chu-tzū and Buddhist Culture.
Home of Korean Learning and Etiquette, Boasting a five-thousand-year-old history.*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춘천방면 중앙고속도로 ▶ 남원주IC ▶ 서안동IC

서울방면 영동고속도로 ▶ 만종JC ▶ 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 영주 ▶ 서안동IC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 ▶ 함창IC ▶ 문경(3번국도) ▶ 예천(34번국도) ▶ 안동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IC) ▶ 문경새재IC ▶ 예천(34번국도) ▶ 안동

대구방면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 민속박물관/도산서원
 중앙고속도로 ▶ 서안동IC ▶ 하회마을/봉정사
 35번국도 ▶ 칠곡 ▶ 군위 ▶ 의성 ▶ 안동

부산방면 경부고속도로 ▶ 금호JC ▶ 남안동IC ▶ 민속박물관/도산서원
 경부고속도로 ▶ 금호JC ▶ 서안동IC ▶ 하회마을/봉정사
 경부고속도로 ▶ 영천IC ▶ 35번국도 ▶ 안동

